

2020년 10월 11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주일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41편 12~13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41편 12~13절)

◎ 찬 송 / 270장(통214) 구주 예수 의지함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에베소서 6장 13~17절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 말씀선포 / 전신갑주 10 - 구원의 투구와

원어로 에베소서 6장 14~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은 앞선 네 개의 갑주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갑주들로 무장하는 동작을 묘사하는 처음 네 개의 동사들은 14절의 첫 단어인 명령형 동사 “서다.”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개의 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이 성도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갑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 네 개의 갑주를 취할 때 세상의 그 어떠한 환경과 인생의 문제, 그리고 영적으로도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바로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섯, 여섯 번째 갑주인 투구와 검은 새로운 명령형 동사인 “가지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문장 구조가 보여 주는 문법적인 것일 뿐,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여섯 개의 갑주를 바로 알고, 성도가 취해야 할 전신 갑주로, 그리스도인들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영적인 전장에서 취하고 가져야 반드시 이모든 것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갑주들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투구에 관하여 개역개정 성경은 “가지라.”로 번역하지만, 사실 헬라어 그대로 직역하면 “집어 들라.”가 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의 투구를 집어 들고, 머리에 써서 더욱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의 공격을 견디고 마침내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로마 군인들의 머리, 곧 뇌를 보호합니다. 마치 호심경이 가슴 속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나 방패가 군사들의 온 몸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 혹은 뇌는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도 자전거나 오토바

이를 탈 때에 헬멧을 쓰며, 특히 공사 현장이나 동굴 같은 곳에 들어 갈 때에 머리가 벽이나 천장에 부딪칠 우려가 있으면 헬멧을 쓰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분명 헬멧은 머리가 외부의 타격에 의해서 손상당하는 것을 보호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한동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구원은 단 한 번에 얻는 것이라는 사실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분명 성경적인 구원론은 단 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삼으사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은 오랜 과정을 통하여 확증되고, 증거 되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이를 때에 완성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한 번에 얻어서 변함없이 지속되는 효과로서의 구원을 “칭의”라고 하고, 이렇게 칭의를 받은 후에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성숙해 지고, 발전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의 축복을 누리는 동안 너무 “칭의”에 치중된 교리가 전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길, 쉬운 길을 알게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성화에 대한 노력을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삶으로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의 모범과 복음의 능력을 충분히 성도의 삶속에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은 단 번에 얻고 끝난다 할지라도, 이러한 은혜의 구원 받은 자는 자신의 삶의 여정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양한 열매를 맺고 세상에 드러내며,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까지 계속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하여 성도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화에 이르기까지 성도는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권면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함으로 얻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칭의로서의 구원을 성화에 이르기까지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특이하게 미래형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주동사인 “까떼르가제스테”는 현재 명령형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온전한 성화에 단계에 이르기까지 바로 지금, 은혜의 구원을 받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한 바로 그 순간부터 계속되어야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루어가라.”는 말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구원의 최종 완성인 예수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성도는 더욱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감으로 완전한 성화의 모습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듯 칭의와 성화는 마치 오른손과 왼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머리가 지시하는 바를 수행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로 살지만 여전히 왼손잡이로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한 손으로만 사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칭의와 성화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구원에 대해서 더 효과적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이 특별한 투구가 영혼과 참 생명을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아 은혜로 얻은 참 생명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이것은 영혼의 심장이 새 생명으로 거듭날 때에 그 순간부터 작동하기 시작하여 영원히 멈추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속성을 뒷받침하는 신학적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한 번 구원 받은 성도는 결코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5대 교리 중 하나입니다. 이 교리는 칼빈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어도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대변하는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는 첫째, 전적인 타락입니다. 둘째, 무조건 선택입니다. 셋째, 제한속죄이며, 넷째, 불가항력적 은혜요, 마지막 다섯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한번 택함을 입은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이 유효한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오류나 실수를 범하지 않으며, 한 번 선택하신 것을 번복하는 일이 없으신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구원을 투구로 비유하여서 투구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머리와 뇌를 보호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다만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로 하여금 방종하고, 나태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끝내 도와 주실 것이라는 자만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견인은 구원의 투구가 의미하는 영적인 가르침의 전제가 되며, 영적인 투구인 구원은 결코 결정적인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군인들의 투구와 같이 머리를 보호하여서, 영혼이 깨어 있어 머리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더 잘 인식하고 더 깊게 알아 가도록 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영혼의 뇌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깨어 있어 살아있는 자들로 성장하고 자라나며 더욱 온전한 삶을 통하여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까지 힘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죄인이었지만, 나를 사랑하시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시고 구원하시어 하나님 나라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모든 성도가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고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랑하고 용납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53장(통506) 예수 더 알기 원하네

◎ 폐 회 / 주기도문